

□ 창업아이템 개발계획 요약서

| | | | |
|-------|--------------------|----|-----|
| 아이템 명 | 막타 | | |
| 팀 명 | 막타 | 팀장 | 조형제 |
| 개 요 | (아이템, 사업개념에 대해 기술) | | |

막타는 외국인을 위한 여객수단 통합예약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현재 외국인들은 2018년도 기준 1500만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였지만 그중 극소수만이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2018 외래관광객 실태조사에 의하면 이들이 한국 여행 준비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정보가 교통편에 대한 정보로 뽑혔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를 방문하기 위해서는 각 여객 수단(KTX, SRT, 고속버스, 시외버스, 항공사)사이트를 하나하나 전부 방문하여 가장 적절한 여객수단에 대한 정보를 얻거나 본인들의 국가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은 뒤 예약을 하기위해 추가적인 검색을 하여 예약을 하곤 합니다. 심지어 KTX의 경우 google에 Seoul to Busan을 검색하면 Ninja-Rails라는 호주계 회사에서 KTX를 예매대행 해주지만 실제금액 59800원짜리 티켓을 약 81000원의 금액에 팔고 있는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럽에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Omio라는 통합예약 어플리케이션처럼 외국인들이 해당 국가들을 방문하기 전에 각 여정별 여객수단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시간표별, 도시별, 그리고 금액별로 정렬해주며 가장 적절한 여객을 고를 수 있도록 도와주며, 나아가 해당 여객을 이용해본 외국인들에게 각각 리뷰와 별점을 받아 실제로 해당 여정에 있어서 어떤 여객수단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정보 또한 얻을 수 있게 하려 합니다. 또한 해당 도시별로 지역상권에 속하는 영세업자들에 대한 광고를 올리며 외국인이 저희의 서비스를 통해 서울 외에 다른 도시에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러한 외국인들에게 저희의 광고를 보고 해당 영세업자들의 가게 및 숙박, 액티비티 업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예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19년 4월 2일 약 1500만에 달하는 현재의 외래 관광객 수에서 2022년까지 이를 2300만 명이 방문하는 것과 관광산업 일자리를 현재의 58만에서 96만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관광을 한다면 한국 경제에도 그리고 관광산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지만 이들이 서울만을 방문하게 된다면 반쪽짜리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뿐 만아니라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들도 많고 의미 있고 역사적인 도시들도 많기에 이러한 외국인들이 보다 더 손쉽게 다른 도시에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 저희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유럽을 방문하는 한국인들만 살펴봐도 한국 포털 사이트에서 충분히 예약 가능한 여객수단들을 유럽에 방문하였을 때 Omio(구 GoEuro)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면서 더 편리하다고 느끼고 보다 더 적합한 방법으로 예약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도 여객수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스카이스캐너처럼 링크를 통해 예약이 가능해지도록 한다면 보다 더 편리함을 느끼고 다른 도시로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Google Play Store과, Apple의 appstore를 검색해보아도 유럽을 가는 사람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Omio(구 GoEuro)와 같은 어플리케이션은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은 korea bus를 검색하였을 때 서울, 부산의 시내버스들만이 검

색되었으며, train, bus를 각각 검색하고 설치하는 과정을 거치거나 Naver Map을 설치하여 여객수단에 대한 단편적인 정보(정확한 해당 출발시간에 대한 각 여객수단의 노선1개)만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하나 시간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해당 여객수단 사이트 혹은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거쳐야 합니다. 한국인들이 해외로 여행갈 때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유럽을 여행가는 사람들의 필수 어플리케이션으로 Omio가 꼽히고 있습니다. Google Map에서도, 그리고 각종 여행플랫폼에서도 예약을 제공하지만 한눈에 확인하기에 편리한 UI 그리고 간편한 예약단계라는 장점이 여러 국가의 관광객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왔고 이는 현재 월 2700만 건의 이용건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도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줄 수 있다면 다른 도시를 방문해보기 위해 이용해보는 외국인들 또한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인기가 많은 '런닝맨'이라는 예능에서 방문했던 도시들과 각각의 명소들, '삼시세끼'가 촬영되었던 지역들, 이 외에도 여러 예능이나 드라마 등의 배경, 세트장으로 사용되었던 도시들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인들 또한 한류열풍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방송에서 나왔던 촬영지들을 기반으로 도시를 소개하고 명장면에서 나왔던 장면의 포토스팟을 안내하며 외국인들에게 한번 방문해보고 싶도록 추천하는 기능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와서 서울만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시들까지로 여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주된 목표입니다.

| | |
|--------------|------------------------|
| 개발 목표 | (아이템의 개발계획 및 최종목표를 기술) |
|--------------|------------------------|

현재 팀원 전원이 멋쟁이 사자처럼이라는 코딩교육 단체에서 구성되어 장고와 자바스크립트, JQuery, HTML, CSS, 그리고 React를 공부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현재 각종 해커톤을 통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현재 고려대학교 파이빌에 입주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단계를 거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8월말 모바일 웹 앱으로 베타서비스를 출시하고 10월에 정식서비스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후 사용자가 확보되면 예약대행 서비스를 도입하려 합니다. 여객수단 예약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번거로워하는 부분을 저희가 대신해주며 외국인들이 다른 도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을 대신 수행하여 다른 도시로 방문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최소화 하려합니다.

최종적으로는 한국을 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이 한국에 머무는 평균기간인 13일 중 5일 정도는 다른 도시들 중 한 곳이라도 방문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에 대한 교통편을 제공하고 방문을 유도하게끔 하고자 합니다.

| | |
|---------------|-----------------------------------|
| 사업화 전망 | (목표시장, 사업전망, 아이템의 강점, 시장기회 등을 기술) |
|---------------|-----------------------------------|

저희 아이템이 목표로 하는 시장은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입니다. 한국에서 해외로 가는 한국인을 위한 어플리케이션은 현재 매우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한 여객수단 통합 어플리케이션은 없습니다. 현재의 1500만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 중 특히 중화권, 그리고 영어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향후 2022년 정부의 계획대로 2300만의 외래 관광객의 숫자를 달성할 때에는 외국인 관광객뿐만이 아니라 한국인 관광객 또한 다른 도시로의 여행을 준비할 때 여객수단을 알아보는데 있어서 많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정보를 포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정보를 얻고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하나의 경로에서만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 해

당 여행을 준비하면서 포털 사이트, 해당국가 혹은 우리나라의 해외여행정보 사이트, 그리고 각종 여행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양한 경로에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도 해외국가의 사람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한국인들까지도 국내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저희의 어플리케이션에서 여행경로에 해당하는 최적의 여객수단을 선정하고 이후 대한민국 구석구석, Visit Korea와 같은 한국관광공사의 어플리케이션과 제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려 합니다.

또한 이러한 여객정보를 제공하며 해당 여객정보 사이트로 링크를 통해 연결해 주는 것을 시작으로 나아가 여객수단 예매대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현재에도 외국 사이트에는 외국인 여객수단 예매대행을 진행해주는 업체들이 있지만 이러한 업체들은 수수료도 상당히 비싸고, 외국인들이 직접 한국 여객수단 사이트를 접속하여 예매하는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사용자 수를 확보하여 해당 여객수단 업체들에 예매대행 서비스를 도입하여 외국인들에게 보다 더 편리한 여객정보 확인과 예매방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들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뿐만이 아닌 다른 도시들을 방문하는 비용을 높이고, 해당 도시들의 지역상권 발전, 그리고 한국의 잘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도시들에 대한 정보 또한 외국인에게 제공하려 합니다.

시작은 약 600만 명에 이르는 중화권 그리고 영어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방탄소년단과 한국 예능, 드라마에 관심을 갖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점차 넓혀 2018년도 기준 총 외국인 관광객 1500만 명 이후 증가하여 2300만 명을 달성하고 점차 증가하게 된다면 한국의 외래 관광객 시장이 증가함에 따라 저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잠재적인 사용자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 아이템의 강점이자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가지 여객수단 사이트에서 각각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단순화
2. 여객수단에 대한 편의 제공으로 외국인들의 서울 외의 다른 도시로의 방문건수 증가
3. 다른 도시들의 지역상권(영세업자)들에 대한 광고를 통해 해당 상권의 발전
4. 한국내의 최초 여객정보 통합 서비스
5.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정보제공서비스

정부에서 외래 관광객의 숫자를 2022년까지 2300만 명, 한국에 머물러 있는 일수를 평균 13일에서 15일로, 그리고 관광산업 일자리를 58만에서 96만으로 증가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세워 한국의 국내 관광산업에 있어서 앞으로의 발전에 저희의 서비스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석구석, 세계적으로 서울처럼 알려져 있지 않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들을 소개하며 해당 도시들에 갈 수 있는 여객수단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통합하여 제공한다면 방한 관광객들도 보다 더 접근성에 있어서 편리함을 느끼며 다른 도시들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서비스에서 저희가 서비스 하려는 부분에 대하여 도입하고 외국인들에게 실시간 여객수단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이 유럽여행을 갈 때 유럽에서 제공되는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지 않듯이 본인들이 이용해야하는 여객수단 정보만을 최대한 간편하고 편리하게 제공하는 Omio를 사용하는 것처럼

외국인들도 이러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네이버, 카카오 등의 해당 나라를 대표하는 포털 여부와는 관계없이 먼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을 이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해당 포털 에서 제공하는 지도 어플리케이션은 '지도'이기에 어느 장소로 갈 때 특히 그중 일상에 밀접한 부분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관광이라는 성격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여행을 간 사람들이 해당 나라의 지도를 이용할 때에는 가까운 곳에 편의점이 어디 있는지, 식당이 어디 있는지, 지하철역이 어디 있는지와 같은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지만 실제 도시에서 도시를 이동할 때에는 관련된 정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곤 합니다. 이처럼 저희는 '지도' 어플리케이션과는 좀 다른 '관광여행수단'에 초점을 맞춰 그 부분을 가장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방법으로 전달하려 합니다.